



정읍시 (사)수제천보존회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한국·헝가리 친선협회 초청으로 한국·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교류음악회에서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다.

세계인의 가슴을 흠뻑 적시다

정읍의 소중한 문화자산 '수제천' 헝가리에 울려 퍼져
부다페스트 공연·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위령제 등 선보여

정읍의 소중한 문화자산 수제천이 헝가리에서 울려 퍼졌다.

정읍시 (사)수제천보존회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한국·헝가리 친선협회 초청으로 한국·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교류음악회에서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다고 밝혔다.

(사)수제천보존회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두나우바로시 2개 도시를 방문해 정읍시를 홍보하고 백제가요 정읍시를 반주한 전통음악 수제천을 선보였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정읍시가 문화 인문도시임을 세계에 표방하고 정읍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수제천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홍보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이다.

수제천 연주단은 지난 5일 두나우바로시 도시에서 현지 중·고등학교 합창단이 준비한 애국가 제창에 이어 수제천을 연주했다. 이날 공연에는 최규식 주헝가리 한국대

사와 체르나고보르 두나우바로시 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아름답고 장중한 수제천의 선율을 감상했다.

체르노고보르 시장은 "한국·헝가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두나우바로시를 찾아준 정읍시에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간의 문화교류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7일에는 지난 5월 유람선 선박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 위령제가 진행됐다.

헝가리 국회의사당 인근 올림픽아공원에서 시작해 사고가 일어난 마가렛 다리까지 도보로 행진하며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다.

또 묵념과 꽃잎을 강물에 띄우며 보내며 안식을 찾기를 기원하는 수제천 공연을 선보였다.

최규식 주헝가리 한국대사와 주헝가리 스위스대사, 부다페스트 대외협력국장 등이 참석한 이날 위령제는 헝가리 공연방송 등 언론사에서 집중 취재·방송하며 헝가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최규식 대사는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헝가리와 협력해 마지막 1명의 희생자까지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8일 부다페스트 헝가리 과학원 공연장에서 열린 마지막 공연에는 도광현 주헝가리 부대사와 사이먼 라즐로 국회의원, 헝가리 인적자원부 차관 등을 비롯해 250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함께했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인의 혼과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최상의 공연을 선보이며 헝가리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공연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천년을 훌쩍 넘어온 한국의 소리 수제천과 관소리, 사물놀이의 협연 공연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한국과 헝가리가 지금처럼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드레아에게 한국·헝가리 친선협회장은 지난 2012년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흉상을 제작해 부다페스트 시민공원에 설치한 바 있다.

정읍시와는 수제천 음악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교류해오면서 이번 초청공연이 성사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원주문화재단, 농부와 예술가 만남 '예술농부 휴먼아카데미' 개최

원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이 2019예술농부 사업결과발표회 '예술농부 휴먼아카데미'를 오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삼례문화예술촌 시어터 애니에서 3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예술농부 휴먼아카데미'는 농부와 예술가의 만남으로 탄생한 영상 및 음악 분야 작품 결과를 공유하고, 3명의 농부와 12명 예술인의 첫 만남에서 현재까지 함께한 에피소드로 함께 한다.

19일 국화옥(이서연) 농부와 배영은, 웹스튜디오(강성범, 김혜지, 배현주) 4명 예술가의 만남을 시작으로, 26일 깊은 산자락에서 꿈췌,

두름 등 산나물을 채취하는 색다른 농부 홍학기(윤주연)씨와 오정균(음악), 오태풍(영상) 만남이 이어진다. 11월 2일 마지막 '예술농부 휴먼아카데미'는 토종시앗 자립농을 실천하는 이종란(고산면) 농부와 박인열(음악), 김선교(영상) 작가가 함께 한다.

또한 '예술농부 휴먼아카데미' 참여자 선착순 100명에게 로컬푸드 가치와 의미를 담은 '농부의 반상' 간단한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3년차를 맞은 '예술농부'는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더하고, 로컬푸드(농업 또는 농부)와 예술의 이색적인 조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원주=이종복기자



전북 레드콘 뮤직 페스티벌이 지난 12일 관람객 6천여명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 레드콘 뮤직 페스티벌 성료... 관객 만족도 극대화

전북도 레드콘 뮤직 페스티벌이 지난 12일 관람객 6천여명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레드콘 뮤직페스티벌은 전라북도과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청년기업 '청춘그리다'가 주관, 익산시가 후원하여 개최한 인디음악 페스티벌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레드콘 뮤직 페스티벌은 전라북도과 전북콘진이 대중음악 콘텐츠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추진중인 레드콘 음악창작소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사이다. 특히,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공연을 자주 접할 수 없는 익산지역에 이번 행사와 같은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익산시민을 포함한 도민들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타 시도에서 온 관람객에 익산을 알릴 수 있는 효과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총 5팀의 제3기 뮤지션의 쇼케이스가 먼저 개최되고 이어 10km, 데이브레이크, 소란 등 국내 인디음악계 최정상급 뮤지션들의 초청 공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라북도기움센터 3D 펜 체험, 홀로그램 체험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전용 캐릭터 제

작, SNS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주 타깃층인 청년층에 맞춤형 홍보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했다.

페스티벌 홍보부터 페스티벌 당일까지 레드콘 음악창작소를 소개하며 인지도 향상 및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3기 레드콘 음악창작소 뮤지션들이 수천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하여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행사 중 지난 10월 11일 제3기 레드콘 뮤지션 5팀이 전부 참여하여 만든 페스티벌 테마송 음원을 지속 송출하여 레드콘 뮤지션들에 대한 홍보효과가 배가되었다.

황철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레드콘 뮤직페스티벌이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줘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기쁘다"며,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전라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와 대중음악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도부터 운영 중인 전라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는 가수별 뮤지션 선발 및 집중 육성으로 도내 대중음악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진성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